

Story of Islands and Orbits	
참여 작가	김민조 (Minzo Kim), 김연재 (Yeonjae Gim)
전시 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2월 14일 (오프닝 리셉션 : 1월 15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팜 (FIM)

전시 내용

팜(FIM)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Story of Islands and Orbits』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작가 김민조와 김연재 작가의 회화 및 도자 작업 10 여점을 선보입니다. 본 전시는 허구적 상상력과 비현실적 장치를 통해 현실을 재사유하는 두 작가의 작업을 조명하며,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 허구가 사회·정치적 구조로 확장되는 다양한 양상을 탐구하고, 허구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의미를 다층적으로 드러냅니다. 두 작가의 서로 다른 조형 언어는 동시대 시각문화 속에서 현실과 허구가 교차하는 지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본 전시는 허구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동시대적 사유의 도구임을 제시합니다.

전시 서문

Story of Islands and Orbits

팜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김민조와 김연재의 2인전 『Story of Islands and Orbits』를 선보인다. 본 전시는 허구적 상상력과 비현실적 장치를 통해 현실을 다시 사유하는 두 작가의 작업을 중심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동시대 시각문화 속에서 '허구'라는 개념이 지니는 폭넓은 스펙트럼과 더불어, 그것이 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탐구하고자 한다.

회화와 설치를 다루는 김민조와 김연재는 각자 고유한 조형 언어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허구가 가능을 수 있는 지점과 범위를 실험한다. 김민조는 실재하는 오브제를 낯선 맥락에 배치해 현실의 감각을 비틀고, 그로부터 현실 자체를 다시 인식하게 만든다. 반면 김연재는 직접적으로 SF 및 장르 문학의 언어와 서사를 차용하여 현실의 구조와 정치적 맥락을 비판적인 거리에서

재구성한다. 1990년대에 태어나 아날로그, 디지털, AI 시대로 이어지는 급격한 기술적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물리적 현실과 가상적·허구적 차원이 공존하는 동시대적 조건을 작업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한다.¹

그러나 두 작가는 허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업에 작동시킨다. 김민조는 개인적 정서와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 허구를 실험하고, 김연재는 사회적·집단적 서사와 감각의 정치학에 집중한다.

폴 리쾨르 (Paul Ricoeur)는 『시간과 서사』와 『자아로서의 타자』에서 인간은 서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고 말했다.² 리쾨르에게 허구적 서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경험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방식”, 즉 자기 이해의 서사적 매개이다.³ 이러한 관점에서 김민조의 작업은 개인적 정체성이 서사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읽힌다. 작가의 작업은 유랑감, 고립감, 온기와 같은 개인의 내면적 정서에 집중하며, 사물에 감정을 투사하여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자기 인식과 개인적 실존의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김민조가 송전탑, 배, 비행기, 종이로 만든 새 형상 등 실재하는, 익숙한 사물을 낯선 맥락으로 읊기는 것은 허구적 배치와 은유를 사용해 ‘나’와 세계의 관계를 다시금 서사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가가 무생물인 사물이나 야생 생물처럼 정서적 교류가 쉽지 않은 대상에 감정을 투영하는 행위는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며 관계를 형성해가는 인식의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김민조의 작업은 대상의 본래 형상을 과하게 훼손시키지는 않으며 ‘나와 대상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둔다. 작가에 따르면 이는 대상이 ‘객체’인 동시에 또 다른 ‘주체’임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두는 행위이다.⁴ 허구를 단지 지어낸 혹은 거짓의 이야기가 아닌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인식의 장치로 보는 리쾨르의 접근법을 거치면, 김민조의 작업이 허구를 활용하는 궁극적 목적은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실천이다.⁵

반면, 김연재는 개인의 이야기 및 감정을 우주적·집단적 차원으로 확장하며, 허구적 서사 구조와 과학소설의 장치를 활용하여 정치적 현실, 사회적 욕망, 집단적 기억을 탐구한다. 이 때 허구는 개인을 넘어 관계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동안 1950-70년대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 SF의 클리셰적 시각 언어를 분석하며, 그 안에 내재된 영웅주의, 기술적 구원, 제국주의적 확장, 정치적 무의식 등을 탐구해온 김연재는 지배적 미래 서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주변으로 밀어내는가에 주목한다.⁶ 이번 전시에 포함된 독일에서 선보였던 작업과 올해 제작된 신작 모두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후자는 이를 확장시켜 전통적인 서구 SF 미래 서사에서 주변화되었던 이들이 상상해온 장소와 세계가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작가는 다양한 SF 소설 속

¹ 김민조 작가와의 인터뷰 질의응답지 중 일부 발췌.

² 폴 리쾨르, 『시간과 서사 1』, 이경훈·문성원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서문 참조.

폴 리쾨르, 『자아로서의 타자』, 김상환·한자경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제1부 참조.

³ 폴 리쾨르, 『시간과 서사 1』, 이경훈·문성원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제3장 참조.

⁴ 김민조 작가와의 인터뷰 질의응답지 중 일부 발췌.

⁵ 폴 리쾨르, 『시간과 서사 1』, 이경훈·문성원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1부 참조.

⁶ 김연재 작가와의 인터뷰 질의응답지 중 일부 발췌.

지형도를 레퍼런스로 삼아 실제 지리적 구조가 왜곡되거나 해체된 새로운 지도와 지구본을 제작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세계가 서로를 경유해 구성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인 조형적 방식으로 시각화한다. 또한 김연재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세계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경계 너머를 상상해온 방식을 참조한다. 주변 환경 등을 토대로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의 구조와 기원을 그려내려는 이러한 시도 자체를 작업의 또 다른 축으로 끌어온다. 이러한 작업은 예술의 정치성을 “감각 가능한 것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힘”으로 규정하고, 허구를 “무엇이 보이고 말해질 수 있는가를 새롭게 배열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이해한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사유와도 맞닿아 있다.⁷ 김연재가 SF 적 서사, 장르 문학적 문법과 시각 언어 등의 형식을 차용해 현실의 정치적 구조와 사회적 욕망을 가상의 내러티브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허구가 현실의 질서 바깥에서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여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랑시에르적 관점으로 보자면 김연재의 작품은 현실의 감각적 질서를 뒤흔드는 미학적 행위의 결과물이다.⁸

김민조와 김연재의 허구적 전략은 서사의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민조가 허구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개인적 감각과 실존을 탐구한다면, 김연재는 허구를 외부로 확장해 사회적 구조와 감각의 질서를 재편하며 공동체와 시스템을 사유한다. 비유하자면 김민조는 “지구에서 바라보는 우주”이고, 김연재는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라 할 수 있다.⁹ 각 작가가 대표하는 ‘리쾨르적 허구’와 ‘랑시에르적 허구’는 서로 대립되는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동시대 예술에서 허구가 현실을 사유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로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Story of Islands and Orbits》라는 전시 제목은 허구를 매개로 현재를 바라보는 이 두 작가의 서로 다른 시선이 하나의 장 안에서 교차하고 공명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⁷ 자크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김상운 옮김(서울: 도서출판 b, 2011), 서문 및 1장 참조.

⁸ Ibid., 서문 및 1장 참조.

⁹ 김민조 작가와의 인터뷰 질의응답지 중 일부 발췌.

작가 소개

김민조 (b.1995)는 허구적 상상력과 비현실적 장치를 통해 동시대를 바라보며, 현실과 상상이 공존하는 감각을 회화로 풀어낸다. 종이 위의 드로잉과 유화를 오가는 과정 속에서 사고의 자유와 물질적 우연성을 동시에 수용하며, 예측 불가능한 회화적 변주를 즐긴다. 비행기, 전봇대, 새와 같은 인공물과 비인격적 존재들을 일종의 '초상'으로 다루며, 정서적 교류가 어려운 대상에 개인적 감각을 투영함으로써 세계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작가는 거시적 풍경과 구조를 관조하는 미시적 시점에 서서, 보이지 않던 존재와 감정의 궤적을 드러낸다.

김민조 작가는 인하대학교 조형예술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다. 2022년 상업화랑과 2023년 갤러리 누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왔고, 서울대학교 미술관, 페리지갤러리, 예술의 시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등 다양한 공간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회화와 드로잉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통해 동시대의 감각과 정서를 탐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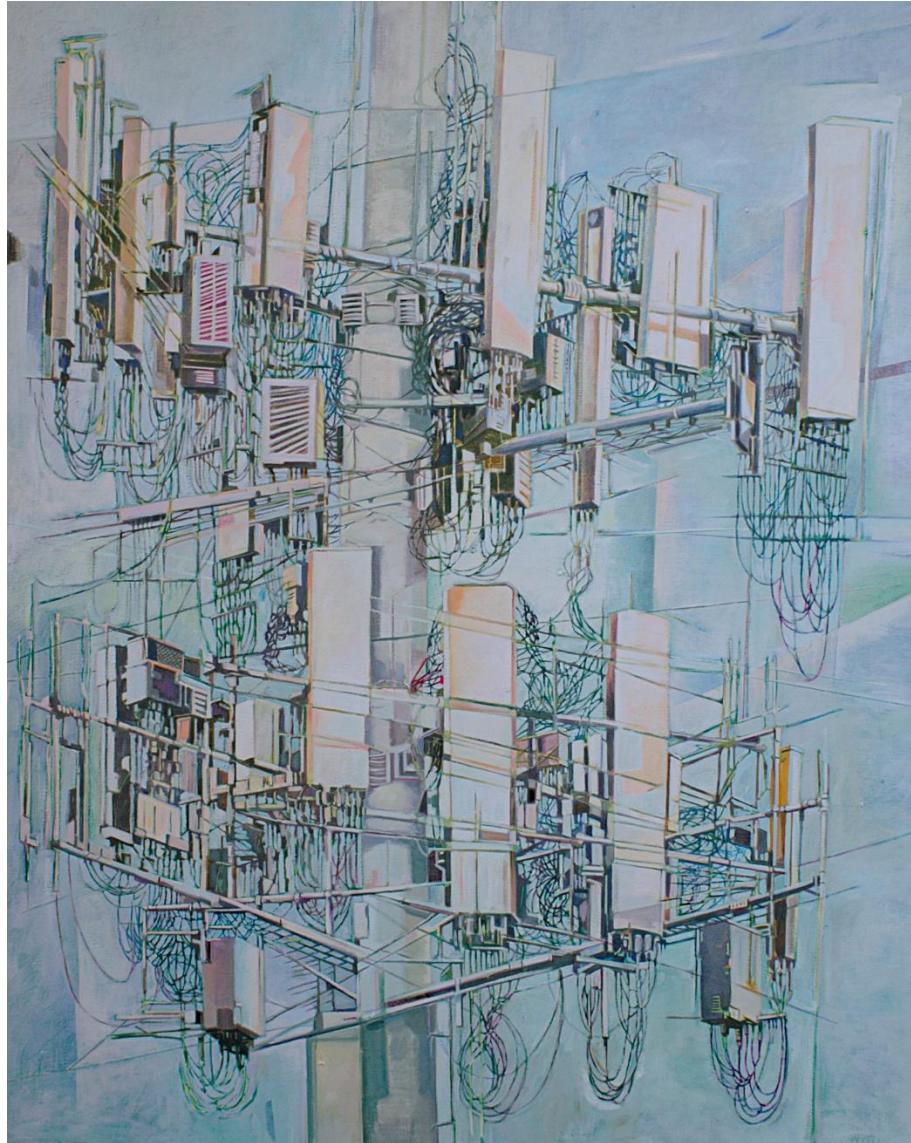
김연재 (b.1997)는 지도와 SF 서사를 주요한 사유의 틀로 삼아, 세계가 어떻게 재현되고 그 재현이 누구의 시각과 권력에 의해 구성되는지를 탐구한다. 지도 제작과 SF 문학이 공유하는 구조적 유사성—완결된 세계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선택과 배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지도(회화)와 지구본(도자 설치)이라는 형식을 통해 인간 인식의 한계와 세계 구성의 정치성을 드러낸다. 냉전기 서구 SF의 클리셰부터 비서구·페미니즘 SF 까지 폭넓은 텍스트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과 상상이 맞물려 만들어지는 시각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해 나간다.

김연재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에서 학사를 마친 뒤 독일 브레멘 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했다. 2021년부터 서울과 울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개인전과 주요 단체전에 참여해 왔으며, 챔버 1965, 유영공간, 대안공간 루프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2022년 울산 남구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에 참여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독일학술교류처(DAAD) 예술 분야 장학금에 선정되어 독일에서 작업과 연구를 이어가다 최근 귀국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대표작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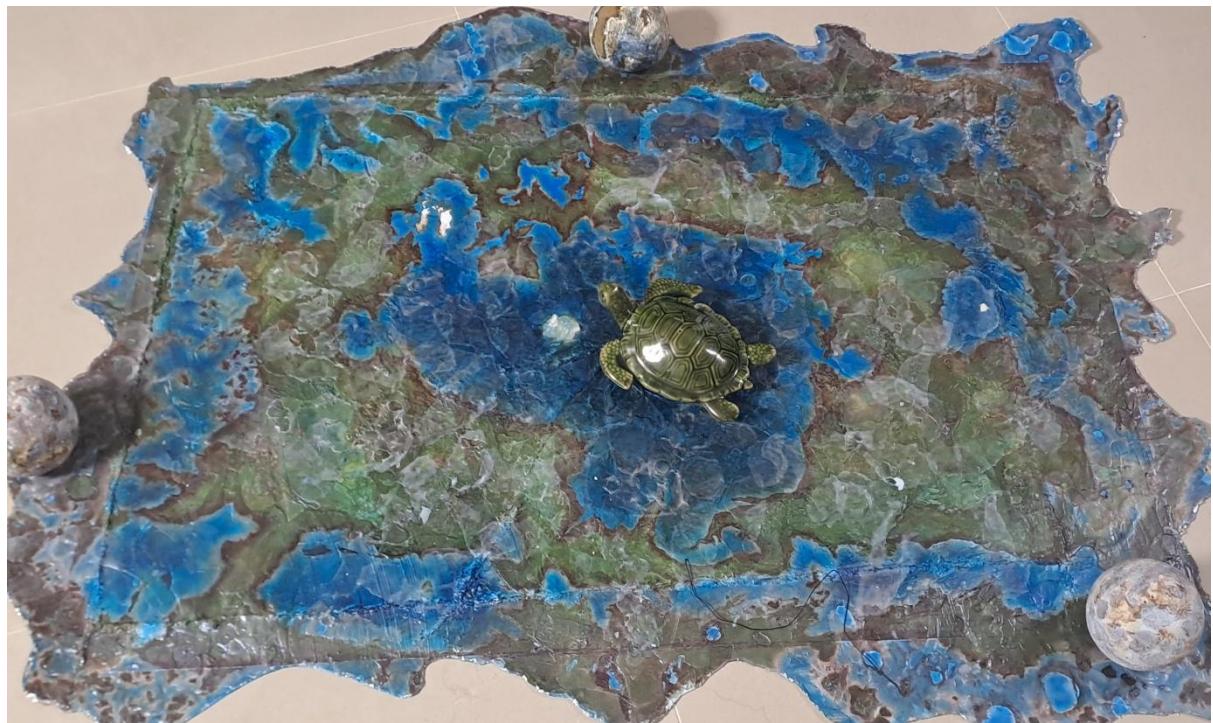
김민조, *하수아비*, colored pencil, oil on canvas, 2025, 162 x 130cm

이미지제공 FIM



김민조, 손 없는 날, watercolor, colored pencil on canvas, 2025, 60 x 73cm

이미지제공 FIM



김연재, *코스믹 에그*, 2026, 세계지도 위 대한민국 지도, 겔 미디엄, 도자, 아크릴 등 혼합매체, 85x113x14 cm

이미지제공 FIM